

Neurohospitalist (진료 전담의) 국내현황과 문제점



김 태 정

서울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신경과

Tae Jung Kim

Department of Neur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eoul, Korea

Contents

- Introduction
- 국내 Hospitalist 현황
- 국내 Neurohospitalist 현황 및 문제점
- Conclusion

Introduction

- **Hospitalist (입원전담전문의)**
 -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환자진료를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시행하는 전문의
 - 입원초기 진찰, 경과 관찰, 환자·가족 상담, 병동 내 간단한 처치·시술 실시, 퇴원계획 수립 등 전반적인 주치의 역할 수행
- **Society of Hospital Medicine**
 - A physician who specializes in the practice of hospital medicine. Following medical school, hospitalists typically undergo residency training in general internal medicine, general pediatrics, or family practice, but may also receive training in other medical disciplines.

Hospitalist 제도 도입 배경

■ 보건복지부

Ⅱ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추진(2016. 9월 ~)

추진배경 : 전문의가 없는 야간 및 휴일 입원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전공의수련환경법 시행 * 에 따른 의료기관 인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추진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주당 최대 수련시간을 원칙적으로 80시간으로 제한(17.12월 시행)

참여기관 : 총 36개 의료기관 참여(내과계 27개, 외과계 16개)

* 36개 의료기관 중 7개 기관이 내과계, 외과계 동시 참여
* 기존 30개 기관이 참여하였으나, 17.2월 6개 기관 추가 선정

* 17.4월 현재 14개 병원에서 입원전담전문의 병동 운영 중(4개 기관은 내과, 외과 모두 운영 중)

① 미국의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현황

- 배경 : 의학이 고도화·전문화됨에 따라 병원 입원환자관리와 효율성과 전문성이 감소하여, 그 대안으로 입원전담전문의 도입
- 현황 : 약 5만명(전체 의사의 약 5%)의 전문의가 호스피탈리스트로 근무, 내과 전문의가 주를 이루나 소아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로 확산
- 주요 업무 : 입원환자에 대한 주치의 역할, 중환자실 환자 관리, 내·외과적 협진, 응급실 내과환자 진료, 야간·주말 근무, 학생·전공의 교육 등
- 성과 : 개원일수, 재입원 감소 등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사고를 감소시켜 환자안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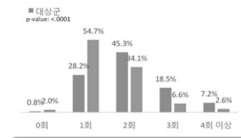
	운영 기관	지역	시범사업 병상수 *	입원전담전문의수
내 과 (17개 기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경기 성남시	28병상	4명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충남 천안시	43병상	3명
	충북대학교병원	충북 청주시	44병상	2명
	서울대학교병원	서울 중로구	40병상	5명
	인하대학교병원	인천 중구	49병상	1명
	서울아산병원	서울 송파구	40병상	5명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경남 양산시	20병상	3명
	삼성서울병원	서울 강남구	47병상	4명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	서울 서대문구	50병상	1명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전남 화순군	45병상/24병상	2명/1명
	충남대학교병원	대전 중구	52병상/50병상/ 37병상/47병상	2명/1명/1명/1명
	가천대학교 길병원	인천 남동구	51병상	2명
	서울대학교병원	서울 중로구	35병상	2명
	인하대학교병원	인천 중구	49병상	1명
외 과 (7개 기관)	원광대학교병원	전북 익산시	40병상	1명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경기 성남시	40병상	1명
	삼성서울병원	서울 강남구	32병상	1명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서울 양천구	55병상	2명
	국립중앙의료원	서울 중구	37병상	1명

입원전담전문의의 사업

- 입원전담전문의 도입 방안 연구(1단계)가 2016년 9-12월까지 시행되었으며, 2017년 5-12월까지 2단계 연구 진행됨.
- 시범사업은 36개 기관이 선정되었고, 그 중 15개 기관, 22개의 병동의 운영이 평가되었음.
- 이후 2018년 7월 부터 제도 확대하였고, 19년부터 입원전담전문의 2명 이상 과목에 레지던트 정원 1명 추가 배치하기로 하여 더욱 많은 병원이 참여하고 있음.

입원전담전문의의 시범사업 평가결과 (2018년 보건복지부 발표)

- 의사와의 접촉이 **평균 5.6회**, **접촉시간이 32.3분** 증가
- 간호사 73.7%가 입원전담전문의로 인해 업무량이 감소 대답
- 입원전담전문의 운영병동 환자들은 대조군에 비해 담당 의사를 보다 신속히 만나(1.63배), 통증조절 등의 입원진료를 보다 빠르게 받을 수(1.96배) 있었음.



하루 평균 병실에서 담당의를 만난 횟수



의사의 충분한 진료시간 할애

내과 입원전담전문의

- 입원 전담병동
- 입원전담전문의: 지정의 및 주치의
- 근무: 입원전담전문의 3명 이상인 병동에서는 2주 근무 1주 off 일정
- 입원전담전문의의 확대 및 초기 안정화 단계

내과 입원전담전문의



분당서울대병원 종합내과 병동

<http://www.khm.or.kr/>

외과 입원전담전문의 (서울대병원)

- 입원전담전문의의 전담병동
- 입원전담전문의: 주치의 업무
- 근무 (2명): 월-금 8A-5P/ 토 9A-1P

Neuro-hospitalist

- 현재 2018년 9월 부터 운영 시작

병원	인원	소속	직책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2명	신경과	진료전담교수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2명	신경과	입원전담교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신경과 입원전담전문의)	2명	신경외과	진료교수

서울 아산병원

- 근무: 입원전담전문의 2명, 월-금 7A-4P
- Team제 근무
 - 1) stroke/epilepsy 2) peripheral/dementia
 - 2) 각 team 에 전공의 함께 배치
- 업무
 - 환자 주치의로 지정 (1명당 20명 정도 환자 진료)
 - 오전에 지정의 선생님과 함께 회진
 - 전공의 병동에서 전공의 supervisor 업무
 - 오후 회진 진행
 - 야간 당직은 없음

삼성 서울병원

- 근무: 입원전담전문의 2명, 월-금 8A-5P
- 병동 제 근무
 - 1) 신경과 1병동 36 beds
 - 2) 전공의가 matching 되어 있음.
- 업무
 - 주치의 지정은 되어 있지 않음
 - General neurology or work up 환자 지칭의
 - 지칭의 선생님/주치의와 회진 진행
 - 병동에서 전공의 supervisor 업무
 - 야간 당직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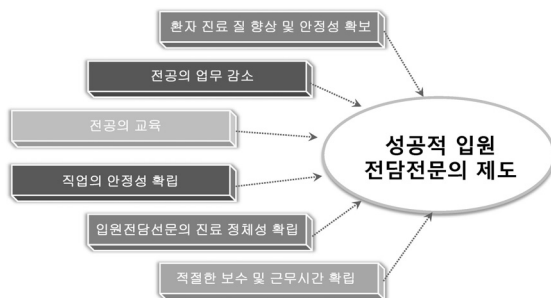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 근무: 입원전담전문의 2명 (신경과), 월-금 8A-6P
- 진료 환자
 - Gamma knife/TFCA 시행 환자 진료
 - 장기 재원 환자/내과적인 문제가 주된 환자 진료
- 업무
 - 단기 입원 (gamma knife/TFCA)환자 주치의 업무
 - 장기 입원 환자 지칭의/주치의 업무
 - 병동에서 전공의 supervisor 업무
 - AED 조절 등 신경과 의견이 필요한 환자 타과의뢰를 통해 진료
 - 야간 당직: 병동 당직 월 1회

Neuro-hospitalist 문제점

- 입원전담전문의 업무 및 정체성 모호
- 다른 의료진과의 관계 설정
 - 내과 입원전담전문의의 경우 주로 general internal medicine care
- 낮은 분야로 선택의 어려움
- 장기적 직업의 불안정성
- 보수, 휴무, 학술활동 지원, 복지지원 문제 등

성공적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Conclusion

- 현재 다양한 형태의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 본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한 근본적인 요건
 -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장래성, 채용 안정성의 확보
 - 독립된 전문의의 의사 결정권 보장
 - 적절한 노동 시간과 노동 강도의 보장, 보수의 산정